

취업자들의 국내 관광여행 참여에 관한 실증 분석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일수·횟수·지출액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Empirical Analysis on Domestic Travel Activities of Workers -Focused on Domestic Travel Numbers, Days and Expenditures-

최승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Seung-Mook Choi(mook@kcti.re.kr)

요약

일자리 특성 등 사회문화적 맥락은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여가시간을 이용한 활동인 관광활동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여행 실태조사 자료 중 국내 관광여행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취업자 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 근로자의 국내 관광여행 일수 및 지출액이 비임금 근로자보다 많았으며, 정규직 근로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일수·지출액이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많았다. 종업원이 500명 이상인 사업장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일수·지출액은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보다 많았으며, 격주 5일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 및 일수는 주 5일 초과 근무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관광진흥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 | 일자리 특성 | 국내 관광여행 횟수 | 국내 관광여행 일수 |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omestic travel activities by job characteristic and derive implications to improve the domestic tourism by using 2010 Korea National Tourism Survey data(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e classified survey samples(1,813 persons) by 6 job characteristic categories and compared the domestic travel activities(number of travel, day of travel, expenditure of travel). As the results of analysis, the domestic travel activities of paid worker, full-time worker, employers with a 500 or more workers, biweekly five-day worker are more than non-paid worker, part-time worker, employers with a 10 or less workers, worker who work six to seven days a week.

■ **keyword** : | Job Characteristic | Number of Domestic Travel | Day of Domestic Travel | Expenditure of Domestic Travel |

I. 서론

관광활동은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도움

이 되며[1],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문화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2]. 최

접수번호 : #120409-005

접수일자 : 2012년 04월 09일

심사완료일 : 2012년 05월 11일

교신저자 : 최승묵, e-mail : mook@kcti.re.kr

근에는 관광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3][4]. 하지만 사람들은 관광활동 참여에 있어 다양한 관광제약을 경험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관광 제약 중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제약이 '시간 부족'이다[6].

주요 관광 제약인 '시간 부족'은 노동시간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관광은 여가시간 동안의 활동인데 여가시간은 노동시간과 배타적이며 교환관계에 있어[7] 노동시간이 여가 시간 및 활동 등을 좌우하기[8-11] 때문이다. 한편 노동시간은 직업 구조, 고용 조건, 노동시간 조직(길이 및 배치)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게 된다[12]. 이 때문에 개별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렵고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며 정시 퇴근 및 휴가의 온전한 사용도 쉽지 않게 된다[13].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연간 실제 근로시간이 가장 긴 이유는 근무해서가 아니라 상사의 눈치를 살피는 문화 때문이라는 분석[14], 국민들의 여가시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연가 및 휴가 사용 활성화, 경제단체와 연계한 민관합동 휴가 활성화 캠페인 전개 등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15] 등도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직업 구조, 고용 조건, 노동시간 조직 등 사회문화적 맥락은 노동시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시간의 변화는 여가 시간 및 활동을 변화시킨다. 그 결과 여가시간을 이용한 활동 중 하나인 관광활동 참여가 상이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사회문화적 맥락은 노동시간 및 여가시간 변화를 통해 관광활동 참여에 있어서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인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 중 일자리 특성에 따라 국내 관광여행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국내 관광여행 참여 경험이 있는 취업자들을 일자리 특성(일자리 형태, 정규직 여부, 기업형태, 사업장 종업원 규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1주일 평균 근로일수) 각 항목별로

집단을 세분화한 후 각 집단별로 국내 관광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참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환경에 대응한 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고찰

1. 노동과 여가 시간 및 활동

일자리 특성 등 노동관련 연구는 관광보다 포괄적 개념인 여가분야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은 노동에 비해 위계적으로 하위에 있는 부가적인 활동으로 인식된다[16]. 따라서 여가시간은 노동시간의 길이에 맞추어서 전략적으로 선택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11].

여가와 노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노동 시간 및 강도의 증가 또는 감소, 노동 환경 변화 등이 여가 시간 및 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도시거주 20~60대 기혼남녀의 노동시간에 따른 여가제약을 분석한 차승은(2011)에서는 주당 근무시간이 길어지면 여가 행위나 여가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이 여가 시간, 내용 및 구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11]. 김영선(2008)은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간 유연화가 여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로 인해 시간 부족 및 시간 회소성이 증가한 결과 여가활동은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 보다 시간집약적 형태 또는 상품집약적 형태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8].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효과를 분석한 김유선(2011)의 연구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실제 근로시간은 11.3% 단축되었으며,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스포츠 등) 및 사회적 여가활동(자원봉사 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9]. 주 5일 근무제 효과를 분석한 박성연·이기영(2007)의 연구에서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이 일요일과 1주일 동안 실시하는 여행/운동/오락활동 시간은 주 5일 근무

1) 우리나라 국민 중 2010년 한번도 국내 여행을 하지 않은 국민들이 여행을 하지 않은 이유 1위는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48.6%)'으로 나타났다[5]

제 비실시 집단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민 등 노동 환경 변화가 여가 시간 및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과 책임의 증가로 여가시간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국에서보다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17][18].

한편 경제활동 특성별 여가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여가 시간 및 비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여가시간은 경제활동(2.89시간) 응답자가 비경제활동(3.94시간) 응답자보다 짧은 반면, 월 평균 여가비용은 경제활동(144천원) 응답자가 비경제활동(129천원)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동 시간의 증가는 여가시간을 단축시키고 여가활동은 소극적 활동 중심으로 변화시킨다. 반면 노동시간의 감소는 여가시간을 증대시키고 보다 활동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여가 시간 및 비용은 노동 시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 일자리 특성과 관광활동

그동안 관광분야에서 일자리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관광객보다는 관광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와 본인 여가와와의 갈등(work-leisure conflict)에 관한 연구[20], 관광객들에게 직접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여행업, 호텔업 등의 일자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노동 특성 연구[21-23]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관광분야의 일자리 특성 연구는 관광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그동안 여가활동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어온 제약 개념을 관광활동에 적용한 관광제약(tourism constraint) 연구[24]가 이루어지면서 관광객들의 일자리 특성이 제한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관광제약의 개념은 관광활동 선택과 참여결정 과정, 관광행동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25], 관광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26], 개인들의 관광활동 횟수 및 비율, 관광활동에 참여함으로 얻게 되는 즐거움 등을 감소시키는 요인[6] 등으로 정의된다.

관광제약에 대한 국외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시간 부족, 비용 부족 등이 주요 관광제약 요인으로 도출되었다[27-30].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시간 부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자리 특성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였다. 관광객들의 일자리 특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로는 Alegre, Mateo, & Pou(2010), Hung & Petrick(2012) 등이 있다. Alegre et al.(2010)는 스페인 가구의 관광활동 참여 제약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가구원들의 직업 안정성, 고용 상태, 가구의 주 수입원 등 일자리 특성 변수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가구의 주 수입원 항목 중에는 자영업과 기타 수입이 관광활동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 중 실업자 수가 2명 또는 3명 이상일 경우 관광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Hung & Petrick(2012)은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관광제약 요인으로 시간 부족(크루즈 관광을 할 시간이 없다)과 업무 부담(업무 때문에 크루즈 관광을 할 수 없다)을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 시간 부족과 업무 부담은 크루즈 관광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광제약 요인으로 도출되었다[32].

관광제약에 대한 국내연구에서도 시간 부족은 주요한 관광제약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하계휴가의 계획과 실행 결과를 비교한 장호찬·홍성권·이석호(2008)에서는 짧은 방학시간, 시간 부족 등을 주요 관광제약 변수로 측정하였으며[33], 국내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장양례·김혜영(2011)에서는 관련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서 휴가기간 부족, 혼잡함, 교통 체증, 숙박 등 4개 항목을 관광제약 요인으로 추출하였다[24]. 이상의 국내 연구에서도 관광객들의 시간 부족을 관광제약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시간 부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일자리 특성을 연구에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행 실태조사』의 부가조사(2011년 1월~3월 조사 시행) 자료 중 2010년 국내 관광여행 경험이 있는 취업자(1,813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국민여행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승인통계 조사로, 목표 모집단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전국 가구 및 가구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다[34].

분석에 활용된 변수는 국내 관광여행 참여 변수(3개)와 일자리 특성 변수(6개)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서 이루어진다. 국내 관광여행 경험이 있는 취업자들의 일자리 특성별로 국내 관광여행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WIN 18.0을 이용한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Duncan)을 실시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2.1 국내 관광여행

『국민여행 실태조사』의 여행은 크게 관광목적의 관광여행과 출장 등 비관광목적의 기타여행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발생하는 관광여행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내 관광여행이란 행정구역상 현 거주지(일상생활권)를 벗어나 여가·위락·휴가, 종교·성지순례, 건강·치료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을 다녀온 국내 여행을 의미한다. 국내 관광여행에는 숙박여행과 당일여행 모두가 포함된다.

국내 관광여행 참여는 2010년 1년간 참여 횟수, 참여 일수, 지출액으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관광 및 여가 활동 참여는 참여 빈도, 참여 기간, 참여 시간[35], 참여 경험 여부 및 횟수[6], 참여 시간 및 비용[10] 등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변수를 고려하여 연간 국내 관광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으

로 국내 관광여행 참여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국내 관광여행 참여를 측정하는 횟수, 일수, 지출액 변수간에는 상관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즉 국내 관광여행 횟수가 많은 응답자는 여행 일수 및 지출액도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당일 관광여행의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이지만 숙박 관광여행의 경우에는 횟수, 일수, 지출액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박2일 여행을 2회 실시한 응답자와 5박6일 여행을 1회 실시한 응답자의 경우 국내 관광여행 횟수가 많다고 여행 일수 역시 많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광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을 모두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일자리 특성

일자리 특성의 개념 및 측정 항목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참고하였다. 199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약 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 특성,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이동, 소득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일자리는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보수)을 받고 일하거나(직장, 아르바이트 등), 내 사업을 하거나(개인사업, 프리랜서, 식당 등의 주인, 혹은 농림수산업), 가족(친척) 일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씩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 특성은 일자리 형태, 정규직 여부, 기업형태, 사업장 종업원 규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1주일 평균 근로일수 등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일자리 형태는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보수)을 받고 일하는 임금 근로자, 내 사업을 하거나 가족(친척)의 일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씩 돈을 받지 않고 돕는 비임금 근로자로 구성된다. 정규직 여부에서 정규직은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비정규직은 단기간 계약직이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서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업형태는 민간회사/개인사업체, 정

부기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소속 공무원 및 군인 등), 정부의 공공기관(정부 투자·출자 기관, 정부 출연 기관, 정부 보조위탁기관, 자회사 등), 법인단체(재단·사단 법인), 기타(외국인 회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로 구성된다. 사업장 종업원 규모는 응답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수를 의미하고,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1주일 평균 근로일수는 일주일에 일하는 일수를 의미한다.

IV. 실증 분석

1. 일자리 일반적 특성

표 1. 응답자들의 일자리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구성비
일자리 형태		계	1,813
	임금 근로자	982	54.2
	비임금 근로자	831	45.8
정규직 여부		계	100.0
	정규직	795	81.0
	비정규직	187	19.0
기업 형태		계	100.0
	민간회사/개인사업체	697	71.0
	정부기관	101	10.3
	정부의 공공기관	85	8.7
	법인단체	48	4.9
	기타	51	5.2
사업장 종업원 규모		계	100.0
	10인 미만	175	21.4
	10~29인	136	16.6
	30~99인	172	21.1
	100~299인	106	13.0
	300~499인	39	4.8
	500인 이상	189	23.1
1주일 평균 근로 시간		계	100.0
	40시간 미만	61	6.2
	40~49시간	568	57.8
	50~59시간	195	19.9
	60~69시간	104	10.6
	70시간 이상	54	5.5
1주일 평균 근로 일수		계	100.0
	주 5일 미만	43	4.4
	주 5일	499	50.8
	격주 5일	147	15.0
	주 5일 초과	293	29.8

주: 정규직 여부, 기업 형태, 사업장 종업원 규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1주일 평균 근로일수는 일자리 형태가 '임금근로자'인 응답자만 해당함

응답자들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형태는 임금근로자 54.2%, 비임금 근로자 45.8%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982명) 중 81.0%는 정규직이었으며,

19.0%는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들의 기업 형태는 민간회사/개인사업체(71.2%)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기관(10.3%), 정부의 공공기관(8.7%), 법인단체(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규모는 500인 이상(23.1%), 10인 미만(21.4%), 30~99인(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40~49시간(57.8%), 50~59시간(19.9%), 60~69시간(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주일 평균 근로일수는 5일(50.8%), 5일 초과(29.8%), 격주 5일(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분석

2.1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횟수

2010년 국내 관광여행 참여 경험이 있는 취업자들의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횟수를 분석하였다. 일자리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6개 항목 중 일자리 형태와 정규직 여부 항목은 응답자들을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며, 나머지 항목들은 응답자들을 3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일자리 형태와 정규직 여부 항목은 T-test를 통해서 두 집단의 2010년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ANOVA를 통해서 각 집단간 2010년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2.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횟수(I)

구분		평균(회)	표준편차	t-value	p-value
일자리 형태	임금 근로자	2.65	2.377	0.156	0.876
	비임금 근로자	2.63	2.135		
정규직 여부	정규직	2.77	2.498	4.252	0.000**
	비정규직	2.13	1.680		

주: ** p<.01

먼저 일자리 형태와 정규직 여부 항목에 대한 T-test 결과 정규직 여부 항목에서 정규직 집단과 비정규직 집단의 2010년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에는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직(2.77회)의 2010년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가 비정규직(2.13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 형태별 2010년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일자리 특성 항목들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사업장 종업원 규모에 따라 구분한 집단들의 2010년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는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의 차이가 있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Duncan)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무 집단(3.17회)과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 집단(2.26회)의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가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들의 2010년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는 유의수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40~49시간(2.77회) 및 50~59시간(2.84회)인 집단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가 60~69시간(1.99회)인 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횟수(II)

구분	평균 (회)	표준 편차	F- value	Duncan test	
기업 형태	민간회사/개인사업체	2.66	2.481	1.114	
	정부기관	2.74	2.322		
	정부의 공공기관	2.47	1.570		
	법인단체	3.08	2.517		
	기타	2.16	1.943		
사업장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2.26	1.862	2.679*	a
	10~29인	2.74	3.193		ab
	30~99인	2.62	2.230		ab
	100~299인	2.67	2.155		ab
	300~499인	2.92	2.321		ab
500인 이상	3.17	2.621	b		
1주일 평균 근로 시간	40시간 미만	2.23	1.394	3.341**	ab
	40~49시간	2.77	2.511		b
	50~59시간	2.84	2.611		b
	60~69시간	1.99	1.510		a
	70시간 이상	2.41	2.024		ab
1주일 평균 근로 일수	주 5일 미만	2.42	2.239	4.390**	a
	주 5일	2.73	2.339		ab
	격주 5일	3.14	3.198		b
	주 5일 초과	2.31	1.886	a	

주: * $p < .05$, ** $p < .01$

1주일 평균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들의 2010년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도 유의수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1주일 평균 근로일수가 격주 5일(3.14회)인 집단의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가 주 5일 미만(2.42회) 및 주 5일 초과(2.31회)인 집단의 평균 국내 관광여행 횟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일수

일자리 형태와 정규직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 간 2010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두 기준 모두 유의수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자리 형태를 기준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5.27일)가 비임금 근로자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4.36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여부를 기준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5.54일)가 비정규직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4.12일)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일수(I)

구분	평균 (일)	표준 편차	t-value	p-value	
일자리 형태	임금 근로자	5.27	4.305	4.849	0.000**
	비임금 근로자	4.36	3.686		
정규직 여부	정규직	5.54	4.465	4.892	0.000**
	비정규직	4.12	3.315		

주: ** $p < .01$

3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일자리 특성 항목들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사업장 종업원 규모에 따라 구분한 집단들의 2010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는 유의수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무 집단(6.28일)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가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 집단(4.39일)의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주일 평균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들의 2010년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는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1주일 평균 근로일수가 격주 5일(6.10일)인 집단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가 주 5일 초과(4.75일) 집단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일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일수(II)

구분	평균 (일)	표준 편차	F- value	Duncan test	
기업 형태	민간회사/개인사업체	5.30	4.507	1.510	
	정부기관	5.29	3.933		
	정부외 공공기관	5.00	3.094		
	법인단체	6.35	4.866		
	기타	4.29	3.048		
사업장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4.39	3.330	3.418**	a
	10~29인	5.40	5.817		ab
	30~99인	5.35	4.526		ab
	100~299인	5.22	3.744		ab
	300~499인	5.26	3.314		ab
500인 이상	6.28	4.365		b	
1주일 평균 근로 시간	40시간 미만	4.70	3.353	1.567	
	40~49시간	5.42	4.343		
	50~59시간	5.52	4.774		
	60~69시간	4.51	3.904		
	70시간 이상	4.83	3.643		
1주일 평균 근로 일수	주 5일 미만	5.14	4.274	3.354*	ab
	주 5일	5.34	4.140		ab
	격주 5일	6.10	5.168		b
	주 5일 초과	4.75	4.052		a

주: * p<.05, ** p<.01

2.3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

일자리 형태와 정규직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 간 2010년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두 기준 모두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자리 형태를 기준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388,563원)이 비임금 근로자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287,552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 여부를 기준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412,023원)이 비정규직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288,826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I)

구분	평균 (원)	표준 편차	t- value	p- value	
일자리 형태	임금 근로자	388,563	417048.01	5.520	0.000**
	비임금 근로자	287,552	362098.03		
정규직 여부	정규직	412,023	427655.59	4.119	0.000**
	비정규직	288,826	352506.74		

주: ** p<.01

3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일자리 특성 항목들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사업장 종업원 규모에 따라 구분한 집단들의 2010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만이 유의수준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500인 이상(512,684원) 사업장 근무자들의 평균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은 10인 미만(311,336원), 10~29인(358,044원), 30~99인(388,151원), 100~299인(373,408원) 사업장 근무자들의 평균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0~499인(441,916원) 사업장 근무자들의 연간 평균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은 10인 미만(311,336원) 사업장 근무자들의 평균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II)

구분	평균 (원)	표준 편차	F- value	Duncan test	
기업 형태	민간회사/개인사업체	396,726	430105.67	2.224	
	정부기관	413,072	399125.70		
	정부외 공공기관	318,656	319352.24		
	법인단체	467,993	437282.80		
	기타	270,223	370055.53		
사업장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311,336	320995.35	4.717**	a
	10~29인	358,044	395690.39		ab
	30~99인	388,151	469133.04		ab
	100~299인	373,408	367927.43		ab
	300~499인	441,916	333587.31		bc
500인 이상	512,684	506704.37		c	
1주일 평균 근로 시간	40시간 미만	379,068	419827.97	1.044	
	40~49시간	395,515	418268.64		
	50~59시간	417,266	424542.69		
	60~69시간	322,938	421126.04		
	70시간 이상	348,902	360662.13		
1주일 평균 근로 일수	주 5일 미만	322,255	394535.53	1.328	
	주 5일	404,663	422622.39		
	격주 5일	414,415	382614.16		
	주 5일 초과	357,905	426331.96		

주: ** p<.01

3.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광여행 경험이 있는 취업자들을 일자리 특성 항목을 기준으로 구분한 후 국내 관광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관광여행 횟수는 정규직 여부, 사업장 종업원 규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1주일 평균 근로일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관광여행 일수는 일자리 형태, 정규직 여부, 사업장 종업원 규모, 1일 평균 근로일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은 일자리 형태, 정규직 여부, 사업장 종업원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일자리 특성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형태의 경우 임금 근로자의 국내 관광여행 일수 및 지출액이 비임금 근로자 보다 많았으며, 정규직 여부의 경우 정규직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일수·지출액이 모두 비정규직 근무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종업원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일수·지출액 모두가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40~49시간 및 50~59시간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가 60~69시간 근무자보다 많았으며, 1주일 평균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격주 5일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 및 일수가 주 5일 초과 근무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형태 항목에서는 국내 관광여행 횟수·일수·지출액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임금 근로자가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보다 국내 관광여행 활동 참여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규직 여부 항목에서는 정규직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활동 참여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장 종업원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종업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장 근무자가 종업원 수 10명 미만 사업장 근무자보다 국내 관광여행 활동 참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기업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참여가 소기업(小企業) 근무자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주일 평균 근로일수에서는 전반적으로 격주 5일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활동 참여가 1주일에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취업자보다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종업원 500명 이상 대기업 근무자 등 보다 안정된 일자리(정기적인 임금 지급, 일자리의 연속성 보장, 복리후생 제도 등) 특성을 갖고 있는 취업자들의 국내 관광여행 참여가 비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종업원 10인 미만 소기업 근무자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격주 5일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참여가 주 5일 초과 근무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간 근로일수도 국내 관광여행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참여

구분	분석 결과
일자리 형태	•관광여행 일수: 임금 근로자 > 비임금 근로자 •관광여행 지출액: 임금 근로자 > 비임금 근로자
정규직 여부	•관광여행 횟수: 정규직 > 비정규직 •관광여행 일수: 정규직 > 비정규직 •관광여행 지출액: 정규직 > 비정규직
기업형태	-
사업장 종업원 규모	•관광여행 횟수: 500인 이상 > 10인 미만 •관광여행 일수: 500인 이상 > 10인 미만 •관광여행 지출액: 500인 이상 > 299인 이하, •관광여행 지출액: 300~499인 > 10인 미만
1주일 평균 근로시간	•관광여행 횟수: 40~49시간, 50~59시간 > 60~69시간
1주일 평균 근로일수	•관광여행 횟수: 격주 5일 > 주 5일 미만, 주 5일 초과 •관광여행 일수: 격주 5일 > 주 5일 초과

V. 결론

많은 사람들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경험하는 주요 제약요인이 여가시간 부족이다. 여가시간은 노동시간과 체로섬 관계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증감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한편 노동시간은 직업 구조, 고용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제조업 등), 200명 미만(도매 및 소매업 등), 100명 미만(교육 서비스업 등), 50명 미만(부동산 및 임대업)이며, 중소기업 중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은 소기업(小企業)으로 분류된다.

조건, 노동시간 조직 등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관계를 확장해보면 사회문화적 맥락은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관광활동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관광활동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실증적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연구 결과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종업원 500명 이상 사업장 근무자, 격주 5일 근무자 등의 국내 관광여행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비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주 5일 초과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몇몇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내 관광여행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 대해서는 복지관광 차원에서 여행 바우처제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바우처(voucher)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로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행바우처 제도의 개별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적 차상위계층이다. 이러한 여행바우처 사업의 신청 자격을 개인이 아니라 소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정부, 기업,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의 여행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 관광여행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상대적으로 국내 관광여행 참여가 높은 계층들의 국내 관광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통해 기업의 휴가 사용 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함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종업원들이 사용하지 연차휴가에 대한 고용주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종업원들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현재보다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휴가문화 우수기업 선정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의 확대시행으로 주 5일 근무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4년 7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되어 온 주 40시간 근무제가 2011년 7월 1일부터 종사자 수 5~19인 사업장까지 확대시행 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1주일에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취업자들의 국내 관광여행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향후 주 40시간 근무제의 정착으로 주 5일 근무자들이 증가하고 그 결과 국민들의 국내 관광여행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관광여행 증가에 대비한 관광인프라 조성, 관광자원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취업자들의 노동시간 및 여가시간, 나아가 관광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그동안 연구가 미흡했던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실증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일자리 특성과 관광활동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2010 국민여행 실태조사」는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설계된 조사이기 때문에 설문문항 구성에 있어 이론적 고려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내 관광여행 활동, 일자리 특성 항목 등에 대한 변수 구성에 있어 이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광여행 횟수·일수·지출액 등 단순히 활동 참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만을 분석하였다. 보다 심도 있고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광활동 내용, 관광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 관광활동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2010년 국내 관광여행 경험이 있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국내 관광여행 경험이 없는 취업자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관광여행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면 좀 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외여행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국내 관광여행과 국외여행은 상호 보완적 관계 또는 대체적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특성별 관광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까지 포함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R. McConkey and L. Adams, "Matching Short Break Services for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to Family Needs and Preference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Vol.26, No.5, pp.429-444, 2000.
- [2] M. K. Yau, B. McKercher, and T. L. Packer, "Traveling with Disability; More than an Access Issu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31, No.4, pp.946-960, 2004.
- [3]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1.
- [4] 송지준, "남한거주 탈북자들의 관광과 여가만족이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제30권, 제4호, pp.237-258, 2006.
- [5]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2011.
- [6] B. Lee, S. Agarwal, and H. Kim, "Influences of Travel Constraints on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tention to Travel: An Application of Seligman's Helplessness Theory," *Tourism Management*, Vol.33, No.3, pp.569-579, 2012.
- [7] 이주연, 김혜숙, 신희천, 최진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여가생활 변화 인식과 삶의 만족감에 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5권, 제4호, pp.83-97, 2011.
- [8] 김영선, "경제위기이후 노동시간의 유연화에 따른 일상 및 여가 시간표의 변화", *여가학연구*, 제6권, 제1호, pp.101-120, 2008.
- [9] 김유선,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산업노동연구*, 제17권, 제1호, pp.37-70, 2011.
- [10] 박성연, 이기영,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직장인의 여가 만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1권, 제4호, pp.137-154, 2007.
- [11] 차승은, "노동시간에 따른 시간압박과 여가계약 건강행동의 선택 혹은 회생?", *한국인구학*, 제34권, 제2호, pp.65-90, 2011.
- [12] Jacobs and K. Gerson, *The Time Divide: Work, Family and Gender Inequal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13] J. Schor,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New York: Basic Books, 1991.
- [14] Forbes, *The World's Hardest-Working Countries*, 2008.5.21.
- [15]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자료집*, 2009.
- [16] J. Gershuny,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Univ. Press, 2000.
- [17] S. Juniu, "The Impact of Immigration: Leisure Experience in the Lives of South American Immigra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32, No.3, pp.358-381, 2000.
- [18] 심재명, "국내 이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가에 대한 연구-민족과 여가계약의 관점에서", *관광학연구*, 제35권, 제5호, pp.169-194, 2011.
- [19] 손명준, 최영환, 최정웅, "노동가능여성의 여가활동에 따른 행복도 결정요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46권, pp.567-581, 2011.
- [20] J. Wong and J. Lin, "The Role of Job Control and Job Support in Adjusting Service Employee's Work-to-Leisure Conflict," *Tourism Management*, Vol.28, No.3, pp.726-735, 2007.
- [21] 지진호, "여행업 종사원의 감정노동과 서비스 제공 수준과의 영향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5호, pp.284-292, 2009.
- [22] 안대희, 박종철, "호텔종사원의 감정노동에 따른 감정부조화가 소진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9호, pp.335-345, 2009.
- [23] 박영배, 안대희, 이상우, "호텔기업 종사원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2호, pp.853-864,

2009.

[24] 장양례, 김혜영, “개별 여행객들의 관광지 선택 속성, 관광계약, 선호관광활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광연구, 제26권, 제1호, pp.331-350, 2011.

[25] 장양례, “실버 관광자의 관광동기 유형에 따른 계약요인과 목적지 선택속성 연구”, 호텔관광연구, 제9권, 제3호, pp.46-62, 2007.

[26] A. Fleischer and A. Pizam, “Tourism Constraints Among Israeli Senior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9, No.1, pp.106-123, 2002.

[27] A. Mowen, L. Payne, and D. Scott, “Change and Stability in Park Visitation Constraints Revisited,” *Leisure Science*, Vol.27, No.2, pp.191-204, 2005.

[28] T. Albayrak, M. Caber, and D. Crawford, “Leisure Constraints and the Pursuits of Adventure Activities in Turke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18, No.2, pp.243-254, 2007.

[29] G. P. Nyaupane and K. L. Andereck, “Understanding Travel Constraints: Application and Extension of a Leisure Constraints Model,”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46, No.4, pp.433-439, 2007.

[30] S. A. Wilhelm, I. E. Schneider, K. J. Shinew, D. J. Chavez, and M. Vogel, “Physical Activity and the 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Differences in Important Site Attributes and Perceived Constraints,” *Journal of Park & Recreation Administration*, Vol.27, No.4, pp.73-91, 2009.

[31] J. Alegre, S. Mateo, and L. Pou, “An Analysis of Households’ Appraisal of Their Budget Constraints for Potential Participation in Tourism,” *Tourism Management*, Vol.31, No.1, pp.45-56, 2010.

[32] K. Hung and J. F. Petrick, “Testing the Effects

of Congruity, Travel Constraints, and Self-Efficacy on Travel Intentions: An Alternative Decision-Making Model,” *Tourism Management*, Vol.33, No.4, pp.855-867, 2012.

[33] 장호찬, 송성권, 이석호, “관광계약요인에 의한 관광의도와 실제 관광행동의 차이”, 관광연구, 제22권, 제4호, pp.207-222, 2008.

[34]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2011.

[35] J. W. Loy, B. D. Mcpherson, and G. S. Kenyon, *Sport and Social System: A Guide to the Analysis, Problem, and Literature*. Menlo Park, CA: Addison-Wesley, 1978.

저 자 소 개

최 승 목 (Seung-Mook Choi)

종신회원



- 1997년 2월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문학사)
- 2002년 2월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관광학석사)
- 2008년 8월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관광학박사)
- 2003년 6월 ~ 2010년 2월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2010년 3월 ~ 현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 연구원 <관심분야> : 관광자원 개발, 관광경제, 도시관광